아오시 신사

아오시 신사의 외관은 약 2 세기 반 동안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868 년 보신 전쟁 때는 당시 천황의 칙령 덕분에 소실을 면했고, 1945 년 나가오카 공습 때는 소이탄에 의해 주변 시설은 소실되었지만 샤덴(신사의 건물)은 소실을 면했으며, 2004 년 주에쓰 지진 때도 도리이나 등롱은 대부분 무너졌으나 샤덴의 붕괴는 면하는 등 신비로운 힘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2006 년에는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도 등록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당시 나가오카번을 통치하던 마키노 가문이 1722 년 나가오카 성의 한 구획에 세운 유서 깊은 신사입니다. 1769 년에 9 대째 번주인 마키노 다다키요가 현재 장소에 건립을 명했고, 1781 년에 완성됐습니다. 아오시 신사의 디자인은 2 세기 이상에 걸쳐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 년)를 모신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 중 하나인 닛코 도쇼구를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신사 안쪽의 좁은 길을 따라 나가오카 번주의 묘비가 늘어서 있습니다. 나가오카 번주인 마키노 가문은 1618 년에 나가오카에 토지를 하사받아 들어왔으며, 마키노 다다나리(1581–1655 년)가 초대 번주가 되어 13 년에 걸쳐 번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번주인 마키노 다다카쓰(1859–1918 년)는 메이지 정부의 정책으로 1870 년에 번주에서 사임하면서 그들의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걸으면 보신 전쟁(1868 년–1869 년)과 세이난 전쟁(1877 년)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의 위령비가 있습니다. 일본 잠수함의 어뢰 탄피가 보존되어 있으며, 위령비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사는 다양한 전통적인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치고산(七五三)'이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11 월 15 일경에 3 세, 5 세, 7 세 어린이를 신사에 데려가서 참배하고, 아이의 향후 건강, 성공,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4 월부터 10 월은 전통 혼례가 진행되며, 일 년 내내 오미쿠지(길흉을 점치는 제비)와 에마(소원 등을 적어 걸어두는 나무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사는 전통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신사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아오시 신사는 나가오카 사람들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의지하는 곳입니다. 기쁠 때나 고난에 빠졌을 때에도 희망, 평화, 지속적인 번영의 상징으로서 마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신사 내 참배

신사는 누구나 참배할 수 있으며, 매일의 노력 속에서 필요할 때 기도를 드리거나 신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배할 때는 배전(참배하기 위한 건물)

앞에 가서 새전함에 동전을 던져 넣고 두 번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손뼉을 두 번 친 후 손바닥을 맞대고 묵념합니다.

기원을 올린 후에는 한 걸음 물러나서 마지막으로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또한 행운이 찾아오기를 빌고 난 후, 위에서 늘어뜨려진 밧줄을 살짝 흔들어 신사의 종을 울리는 관습도 있습니다.